

후지보 - 조사로 뽑은 정방 세 올 교연사를 개발

후지보의 방직기술부는 세 올의 조사(粗絲)를 링 정방기에서 드래프트(draft)를 주어 가늘어진 플리스(fleece)를 트래블러(traveller)로 꼬임을 줘 단사(單絲)로 만든 정방 세 올 교연사(交撚絲)를 만드는 기술을 특허출원하였다.

두 올의 조사를 정방기에서 단사로 뽑는 정방교연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보통의 단사보다도 섬유의 배열이 촘촘하게 몰려 있으며 단면이 원에 비슷하면서도 이합연사와도 비슷한 단사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.

연사기에서 세 개의 단사로 꼬아 만든 삼합연봉사의 경우, 강력도 강해지고 실의 단면도 원형 비슷하면서 잔털도 적어진다는 데 힌트를 얻어, 후지보의 방직 기술부가 개발한 정방 세 올 교연사는 삼합연사의 중심부에 작지만 공극(空隙)이 있으면서도 실의 둘레에 섬유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실의 표면이 원을 이루고 있어, 실이 잔털도 적고 깨끗하면서 강도도 좋은 것이 특징이다.

후지보는, 세 올의 조사를 공급해 주는 부품을 후지보가 직영하는 화성품(化成品) 공장에서 만들어 직영 “오이타(大分)” 방적공장의 정방기에 달고 특허를 출원하면서 생산을 개시하였다.

후지보는 이집트산 초장면(超長綿)만을 사용한 정방 세 올 교연사로 제직한 직물임을 분명히 밝힌 “이지퓨어” 브랜드로 발표하였다. 이 직물은 120수 세 올 교연사나 150수 세 올 교연사로 셔츠, 블라우스, 외의 등을 2004년 춘하절 상품으로 판매하게 된다.

유럽 시장에서는 세 올 교연사 직물이 보텀(bottom) 소재 등으로 붐을 이루고 있어, 이 붐이 일본 시장에도 파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. 초년도 판매 목표는 직물로 30억엔으로 정하고, 재킷, 보텀 소재 등으로 80수 세 올이나

60수 세 올 교연사로 시제품을 만들고 있다. 우선은 직물로 수요를 개발하고 있지만, 곧이어 부드러운 실의 장점도 살려 편포도 수요를 개발할 예정이다.